



PDA 시장, 2007년까지 연 18.3% 성장

미 조사회사 In-Stat/MDR사는 PDA 시장이 2002년부터 2007년에 걸쳐 연 18.3%의 성장을 보일 것이며, 그 중 올해 가장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In-Stat/MDR는 2002년 PDA 시장 침체는 세계적인 경기악화, 미국 소비자의 구매 의욕 감퇴, 법인의 IT예산 긴축화 등이 원인이었지만, 금년은 저가격화, OS의 강화, 멀티미디어/무선 기능의 통합 등에 의해 PDA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동사는 또 PDA 시장은 2002년부터 2007년에 걸쳐, 연 18.3%의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가장 크게 성장하는 해는 2003년이라고 밝혔다. 동사 애널리스트 Cindy Wolf 씨는, “앞으로의 성장은 PDA가 단순한 PC의 주변기기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납득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지적했다.

PDA 시장에는 현재, 저가격, 중급, 고급 지향의 군이 생성되어 있으며, In-Stat/MDR에서는, 대부분의 메이커가 금년, 이 모든 분야에서 각종 제품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또 금년은 소니와 직접 경합하는 제품을 다른 메이커가 내놔 멀티미디어 기능의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메이커 각사는, 신규의 유저를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제품의 마진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고 동사는 지적하고 있다.

In-Stat/MDR에서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PDA의 비율은 2002년이 약 15%였지만, 2007년에는 이 비율이 75%에까지 확대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도코모, 손목시계형 PHS 「WRISTOMO」 개발



NTT 도코모는, 27일 손목시계형의 PHS 단말 「WRISTOMO(リストモ)」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품의 발매일은 미정이지만, 빠르면 4월 이후에 Web 사이트를 이용 주문을 받을 예정이다. 가격 역시 미정이지만, 5만엔 이하가 될 전망.

WRISTOMO는 메일이나 Web 브라우징이 탑재된 세이코 인스트루먼트제의 손목시계형 PHS 단말기로, 손목시계 형태를 하고 있지만, 디스플레이 상에 있는 리스트밴드 개폐 버튼을 누르면 보통

의 휴대폰처럼 변형돼 통화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도코모는 “손목시계형 단말 자체는 벌써 컨셉 모델 등으로 실현되고 있지만 모두 스피커나 이어폰을 사용하여 실제 통화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WRISTOMO는 변형 기구를 채용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스타일에서의 통화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 단말기는 ‘mopera’를 이용해 브라우저 폰의 컨텐츠나, i모드의 일반 사이트를 브라우징 할 수 있으며, 최대 전각 3,000 문자를 송수신 할 수 있는 ‘파르디오 E메일’도 지원하며, PHS 위치 정보를 이용한 ‘위치 정보 컨텐츠’도 이용할 수 있다. 또 배면에는 케이블 접속용의 포토가 준비되어 있어 전용 싱크로 케이블을 이용하여 PC상의 Outlook 데이터와 WRISTOMO의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다. 다만, 동제품을 접속한 PC로 데이터 통신이나 Web 브라우징을 할 수 없다.

핸드폰으로 변형 시 크기는 171.5×40.4×18.5 mm, 무게는 113g이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탑재해, 연속 통화 시간은 약 120분, 연속대기시간은 약 200시간이며, 일상생활 방수(3 기압 방수)에도 대응하고 있다.

미 기업 57%, 무선 LAN 도입 완료

미국의 조사회사인 Jupiter Research는 지난 3월 17일 미국 기업의 57%가 무선 LAN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으며, 22%가 향후 1년 이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사의 애널리스트인 Julie Ask씨에 의하면, “보안 상의 염려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적응 미숙으로 기업의 무선 LAN 도입은 한정적이었으나 무선 LAN 기기의 가격 하락과 네트워크 회사나 업계 단체가 보안 대책을 마련 중이어서, 기업의 도입 가능성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규모로 보면, 무선 LAN 네트워크 도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연간매출 1000만 달러 이하의 기업에서, 83%가 도입이 끝난 상태이거나 1년 이내에 도입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간매출 10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에서의 비율은 71%가 되고 있다.

IDC, 올해 LCD 모니터 20억 달러 판매 예상

세계적인 조사 기관인 IDC는 지난 19일 올해 LCD(liquid crystal display) 모니터가 최고 20억 달러 어치가 판매될 예정이며, 이는 CRT(cathode ray tube) 모니터 판매 대수보다 많은 액수일 것이라고 밝혔다.

ID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PC모니터 시장은 올해 4.8퍼센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0.7퍼센트 성장에 비해 큰 폭의 성장이라고 밝혔다.

LCD 모니터의 경우 제조기술의 발전에 따라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어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LCD 모니터 중에서도 15인치가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5년에는 17인치가 우세할 것이라고 IDC는 밝혔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큰 모니터 시장은 미국으로 전체 34.4퍼센트를 기록했으며, 아시아가 24.6퍼센트로 그 뒤를 쫓고 있다.

2002년의 세계 휴대 판매 대수, '4억 2340대'



미국의 시장조사 회사인 가트너 데이터퀘스트(Gartner Dataquest)는 지난 3월 10일 2002년 세계 휴대전화 판매 대수는 전년대비 6%증가의 4억 2340만대에 이르렀다고 보고했다. 또 4분기 판매 대수는 2001년 대비 14% 증가한 1억 2260만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노키아(Nokia), 모토로라(Motorola), 삼성, 시멘스(Siemens)가 모두 2001년 대비 쉐어를 늘린 것에 반해 Sony Ericsson은 유일하게 쉐어를 6.7%에서 5.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쉐어의 증가율이 가장 큰 것은 삼성으로 7.1%에서 9.8%로 성장했다.

이를 반영하듯 2002년의 연간 쉐어 상위 5개사는 Nokia가 35.8%로 1위를, Motorola가 15.3%로 그 다음을 기록했으며, Samsung이 9.8%로 3위, Siemens 8.2%, Sony Ericsson 5.5%의 순서로 나타났다.

삼성은 2001년 4위에서 큰 폭으로 성장해 2002년에는 3위로 도약했다.